〈구역모임 교재 / 2025년 10월 19일 주간〉

“ 하늘의 옷장을 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성경봉독 :** 골로새서 3장 12~17절(구약 p.327)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14절**에서 ‘하늘나라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옷 입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여러 덕목들을 옷처럼 입으라고 권면하지요.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어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는 무엇인가요?
   ①온유　　②성령　　③사랑　　④평강　　⑤은혜

3. 감사를 잃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8장 32-33절)
   ①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②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③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④ 돈을 빌린 상대방이 미워서

4. **골로새서 3장 16-17절**에는 ‘감사를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괄호에 알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적으세요. **첫째,** (　　)으로 풍성히 채우자. **둘째,** 힘들수록 (　　)하자. **셋째,** (　　)의 이름으로 살자.

〈보기〉 칭찬, 창조, 말씀, 기도, 찬양, 행복, 믿음, 착함, 예수, 기도, 훈련, 기억, 등경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고전 10~13장) 바울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20절) 라고 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역시 바로 그 확신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그들의 식탁 문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 파당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미 전하였던 성만찬을 다시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식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월

화요일(행 19~20장)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여러 사람의 간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21절) 라고 말하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 바울보다 먼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를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더욱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무렵 바울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화

수요일(롬 1~3장) 예수의 이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은 자신이 그 귀한 복음에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제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작별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석 달 동안 중요한 일 하나를 하는데,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수

목요일(롬 4~7장)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 그 구속의 은총은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인간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멍에인 죄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목

금요일(롬 8~9장)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금

토요일(롬 10~13장) 바울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버림받았으며,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는 장차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토

주 일(롬 14~16장)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픈 비전의 사람이며,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한 깊은 배려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스페인)에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8절)는 예수님의 유언을 자기 삶의 소망과 목적, 방향과 내용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 싶어서 스페인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

*** 합심기도 :**

1.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2. 군산삼학교회가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3. 가정과 일터,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536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